

# 『상서(尙書)』의 신주소(新注疏)로서, 한국본 『서전대전(書傳大全)』 간인본(刊印本)들 간의 서지학적 이동(異同) 연구

김유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관리 지원, 고문헌관리학 서지학 전공  
haehwan@aks.ac.kr

- I. 머리말
- II. 『서집전(書集傳)』과 『서전대전(書傳大全)』
- III. 국내 현존본 『서전대전』 간인본 계통
- IV. 『서집전』·『서전대전』 간의 원문서지학적 비교
- 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고대로부터 유가경전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그 유가경전은 송대(宋代)에 십삼경(十三經)으로 완성되었는데, 이는 당대(唐代) 『오경정의(五經正義)』를 근간으로 팔경(八經)이 추가된 고주소(古注疏)의 형태였다. 그리고 이후 송대 주자학(朱子學)이 성립되면서 사서(四書)를 중심으로 한 사서오경(四書五經)의 신주소(新注疏) 형태가 출현하면서, 유가경전은 기존의 공인된 고주소와 새롭게 공인된 신주소의 두 가지 형태의 주해서(注解書)가 공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에서도 조선시대까지 두 가지 주해서가 공존하였으나, 현재 국내 대다수의 경학사 연구가 주자학의 신주소에만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자학의 신주소는 송대 주자서(朱子書)와 명대(明代) 『사서오경대전(四書五經大全)』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미비하다.

위와 같은 경학사적 배경에서, 동아시아 상서류(尙書類) 주요 주해서도 고주소 계통의 당대 『상서정의』· 청대(淸代) 『상서주소(尙書注疏)』와 신주소 계통의 송대 『서집전(書集傳)』<sup>1)</sup>· 명대 『서전대전(書傳大全)』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신주소 계통인 송대 『서집전』과 명대 『서전대전』 간에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를 전후로 주자학을 신봉하였으나,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신주소가 출현한 배경과 한국 경학사에 영향을 미친 배경에 대한 문헌학(서지학)적인 연구가 정밀히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간행한 『상서(尙書)』의 신주소 계통(『서집전』· 『서전대전』) 간인본 전수 조사와, 중국 내 현존하는 최고(最古) 선본(善本)인 『서집전』과의 원문서지학 비교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

위와 같이 『상서』를 비롯한 유가경전 전체에 대해, 국내에 비록 번역서와 연구서가 셀 수 없이 많더라도, 실제 송대 주자(朱子)와 그 제자들이 완성한 초기 원본(原本)과의 원문서지학적 비교조사 연구는 거의 부재한

---

1) 蔡沈의 『書集傳』은 異名이 매우 많다. 蔡沈의 序에 나타난 ‘集傳’이라는 용어와 대다수의 논저 등에서 지칭하는 ‘書集傳’이라는 서명을 근거로, 본고에서도 ‘書集傳’으로 기본 명칭을 삼았다.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현재 우리가 교수학습하는 유가경전의 내용이 초기 주자의 유가경전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상서』에만 국한하여 국내에서 간행·유통된 본(本)들을 시대별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에 현존하는 최고 선본인 『주문공정정문인채구봉서집전(朱文公訂正門人蔡九峰書集傳)』과 비교분석을 시도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향후 유가경전 연구에서 고문헌학적인 기초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sup>2)</sup>

## II. 『서집전(書集傳)』과 『서전대전(書傳大全)』

중국 송대에는 전대(前代)로부터 국가에서 공인한 주해서인 당대 『상서정의(尙書正義)』가 여전히 중앙의 국자감(國子監)을 중심으로 간행·유통되었다.<sup>3)</sup> 이후 남송대(南宋代)에 주희(朱熹)의 제자(弟子)인 채침(蔡沈)이 『서집전』을 발간하여 원대(元代)에 관학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명대에 『서전대전』으로 간행·유통되면서, 『상서』의 주요 주해서는 기존의

- 
- 2) 2013년 교육부 고전문헌 국역지원사업으로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발행한 『尙書正義1』의 해제에서, 김유미는 동아시아의 『尙書』에 관한 연구를 총체적으로 서술한 바가 있다. 그리고 2017년 書誌學研究 第70輯 「국내 주요 尙書類 문헌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에서 『尙書』의 주요 공인된 注解書로서 古注疏 계통의 『尙書正義』·『尙書注疏』와 新注疏 계통의 『書集傳』·『書傳大全』의 2체제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해 논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간행한 新注疏 계통을 시대별로 조사하고, 중국 내 현존하는 最古 善本인 『書集傳』과 원문서지학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논하였다.
- 3) 宋代에는 유가 경전이 官刻本·坊刻本·家刻本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간행·유통되었다. 이러한 宋代에 관각된 經의 수는 唐代的 九經을 따랐는데 실제로는 12종으로, 후에 孟子가 추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후에는 ‘十三經’으로 칭해졌다. 한편 南宋 이전까지는 注와 疏가 각기 單獨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南宋 光宗 紹熙 연간에 黃唐이 처음으로 經文과 注疏를 합간하여, 마침내 經部의 叢書인 十三經注疏가 이루어졌다. 이후 다시 十行本(『九經三傳沿革例』)이 만들어져 元明代에도 계속 補修되어 쓰이며, 最古의 版本이 되었다. 이 十行本은 明代 正德 연간까지 존재하여, ‘正德本’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劉起鈺, 「尙書與群經版本綜述」, 『史學史研究』第三期(北京師範大學歷史學院史學研究所, 1982), 50-55쪽; 羅樹寶 著, 趙賢珠 譯, 『중국책의 역사』(다른생각, 2008), 104-119쪽; 何耿鏞 著, 장영백·조관희·김에영·박덕교·전영숙 譯, 『經學概說』(청아출판사, 1992), 132-167쪽; 蔣伯潛·蔣祖怡 著, 崔錫起·姜貞和 譯, 『儒教 經典과 經學』(景仁文化社, 2002), 17쪽; 李學勤 主編, 『十三經注疏·尙書正義』(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整理說明 2.

고주소 계통(『상서정의』·『상서주소』)만을 공인하던 1체제에서 신주소 계통(『서집전』·『서전대전』)도 추가 공인한 2체제로 재편되었다.

또한 고려시대에 『오경정의』가 간행·유통되었다는 기록이 『고려사(高麗史)』 등의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어, 『오경정의』에 속하는 당대 『상서정의』도 주요 주해서로서 간행·유통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고려 후기 주자학의 전래와 명나라의 과거 시행 준칙에 관한 조서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서집전』을 수용하면서, 국내에서도 『상서』의 주요 주해서가 기존의 고주소 계통만을 공인하던 1체제에서 신주소 계통도 추가 공인한 2체제로 재편된 것으로 추정된다.<sup>4)</sup>

### 1. 송대 『서집전』과 명대 『서전대전』의 편찬배경

중국에서는 당대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經典釋文)』을 거쳐, 북송(北宋)·남송(南宋) 교체기에 오역(吳棫)의 『서비전(書禱傳)』에서 본격적으로 『공전고문상서(孔傳古文尙書)』의 위작설(僞作說)을 제기하였다. 당시 오역 외에도 정초(鄭樵, 1104-1162)·홍매(洪邁, 1123-1202)·조공무(晁公武, ?-?) 등이 의심을 하였다. 그리하여 남송대 주희는 오역의 주장을 수용하여 구체적으로 위작(僞作)을 논증하였으며, 이러한 주희의 변증 성과는 그의 제자인 채침을 통해 계승되어 『서집전』으로 구현되면서 원명대(元明代)에 널리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명성조(明成祖)는 영락(永樂) 12년에 칙명으로, 호광(胡廣, 1370-1418) 등에게 삼부대전(三部大全)<sup>5)</sup>인 『사서대전(四書大全)』·『오경대전(五經大全)』·『성리대전(性理大全)』<sup>6)</sup>을 찬수(纂修)하게 하였다.

4) 중국과 한국에서 주요 『尙書』 注解書가 1체제에서 2체제로 변화된 과정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5) 본래 『四書五經大全』·『性理大全』이었으나, 永樂帝가 이를 『四書大全』·『五經大全』·『性理大全』의 3部로 나누어 반포하게 하였다. 李康範, 「明代『五經大全』纂修의 배경과 經學史的 意義」, 『중국어문학논집』 第74號(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437-449쪽.

6) 『四書大全』·『五經大全』·『性理大全』은 각기 총 38卷 18冊·152卷 75冊·70卷 27冊으로 도합 260卷 120冊으로 편성되었다. 『四書大全』은 朱熹의 注를 기본으로 삼아, 『論語大全』 20卷 7冊·『孟子大全』 14卷 7冊·『大學大全』 1+(1)卷 1+(1)冊·『中庸大全』 1+(1)卷 1+(1)冊으로 구성되었고, 『五經大全』은 『詩經大全』 20+(2)卷 10+(2)冊·『書傳大全』 10+(1)卷 10+(1)冊·『周易大全』 24卷 12冊·『禮記大全』 30卷 18冊·『春秋大全』 37+(4)卷 18+(4)冊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書傳大全』의 경우 蔡沈의 『書集傳』을 기본서로 하고 여러 學說을 모아 집대성하였다. 그런데 『五經大全』에 대하여 清代 顧炎武는 표절 아닌 것이 없으며, 『春秋大全』은 元代 汪克寬의 『春秋胡傳纂疏』를,

그런데 홍무(洪武) 연간 자음(字音)·자체(字體)·자의(字義) 등의 정밀한 고증을 통해 『서전회선(書傳會選)』을 편찬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영락 연간에는 정난지변(靖難之變)의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졸속으로 『오경대전』을 편수하여, 후대에 표절시비로 비난을 받았다.

## 2. 고려시대 『서집전』과 조선시대 『서전대전』의 수용배경

고려 후기 안향(安珦, 1243-1306)이 1289년(충렬왕 15) 왕과 왕후를 호종하여 원(元)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필사한 주자서와 공자(孔子)·주자의 화상(畫像)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주자학을 수용하면서<sup>7)</sup>, 기존의 당대 『오경정의』와 송대 주자서가 병용되다가, 점차 주자서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안향의 제자이면서 이제현(李齊賢)의 장인인 권부(權溥, 1262-1346)의 건의로 사서집주(四書集注)가 간행되고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역시 주자집주(朱子集注)를 강설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로 볼 때 고려 말기에 주자서에 속하는 『서집전』도 국가적으로 간행·유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민왕대(恭愍王代) 1370년(공민왕 19) 6월 명나라 황제가 보내온 과거 시행 준칙에 관한 조서에 ‘서(書)는 채씨전(蔡氏傳)·고주소’로 채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sup>8)</sup>, 『상서』의 주요 주해서로 채침의 『서집전』과 공영달(孔穎達)의

---

『詩經大全』은 元代 劉瑾의 『詩傳通釋』을 표방하였다고 비평하였다. 그리고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周易大全』은 董楷의 『周易傳義附錄』, 董真卿의 『周易會通』, 胡一桂의 『周易本義附錄纂疏』, 胡炳文的 『周易本義通釋』을, 『書傳大全』은 陳樸의 『尚書集傳纂疏』, 陳師凱의 『書蔡傳旁通』을, 『禮記大全』은 42家의 諸儒의 說과 陳皓의 『禮記集說』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하였다. 한편 元代에는 宋代 典籍을 답습하였으나, 『禮記』만은 鄭玄의 注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明代 『五經大全』에서 이것을 陳皓의 『禮記集說』로 바꾸었다. 그런데 이 陳皓의 『禮記集說』은 전에 것만 못하여, 清代 朱彝尊이 ‘兔園冊子’라고 풍자하였다. 이처럼 같은 官書라도, 明代 『四書五經大全』은 唐代 『五經正義』보다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송일기, 「永樂 內府刻本 〈四書大全〉의 朝鮮 傳來와 流布」, 『한국문헌정보학회지』 第48卷 第1號(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101쪽; 何耿鏞(1992), 앞의 책, 168-169쪽; 蔣伯潛·蔣祖怡(2002), 앞의 책, 396쪽.

- 7)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 이전부터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8) 高麗史 世家 恭愍王 19年 6月 24日. “一, 鄉試·會試, 文字程式. 第一場. 試五經義, 各試本經一道. 不拘舊格, 惟務經旨通暢, 限五百字以上. 易, 程氏·朱氏·注古注疏, 書, 蔡氏傳·古注疏, 詩, 朱氏傳·古注疏, 春秋, 左氏·公羊·穀梁·胡氏·張洽·傳, 禮記, 古注疏, 四書疑一道, 限三百字以上. 第二場. 試禮·樂論一道, 限三百字以上, 詔·誥·表·箋內, 科一道. 第三場. 試經·史·時務策一道, 惟務直述, 不尙文藻, 限一千字以上. 試三場, 後十日, 面試. 騎觀其馳驟便捷. 射觀其中數多寡. 書觀其筆畫端楷. 算觀其乘除明白. 律聽其講解詳審. 律用見行律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history.

『상서정의』를 병용하는 2체제로 하되, 『서집전』을 『상서정의』보다 앞서 언급하여 보다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려시대 고주(古注)·신주(新注)의 2체제는 조선시대 신주 중심의 단일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형태라고 간주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고려 말기에는 『서집전』을, 조선시대 세종대(世宗代)에는 『서집전』 계통의 『서전대전』을 국가정책으로 수용하면서, 신주소 계통이 널리 간행·유통되었다.

### Ⅲ. 국내 현존본 『서전대전』 간인본 계통

동아시아에서 상서류 문헌 중 주요 문헌으로는 『상서정의』·『서집전』·『서전대전』·『상서주소』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간행한 현존본으로는 서전대전류(書傳大全類)<sup>9)</sup>만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후기에는 남송 성리학의 영향으로 『서집전』을 국가적으로 수용하고, 조선 초기에는 『서집전』 계통의 『서전대전』을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간행·보급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상서』의 신주소 계통이 국내에서 간행·유통된 상황을 파악하고자, 현존본인 한국본 『서전대전』만을 서지학적으로 조사하고 계통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한국본 『서전대전』을 좀 더 정밀히 이해하고자, 먼저 명대 『서전대전』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 시대별 한국본 『서전대전』의 간인본(刊印本) 형태를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 1. 명대 목판본 『서전대전』

명대 『삼부대전』은 총 260권 120책으로, 관각본(官刻本)[내부각본(內府刻本)]·사각본(私刻本)[방각본(坊刻本)·가각본(家刻本)]으로 구분한다. 이

go.kr).

9) 현존하는 한국본 尙書類는, 書傳大全類(『書傳大全』·『書傳』·『書經』·『書傳正文』·『書經正文』·『書傳大文』·『書經大文』·『書大文』·『書大全』·『書傳抄』·『書傳正音』)와 書傳診解類(『書傳診解』·『書經診解』·『書傳釋義』) 및 기타 類(『御製書傳條問』·『書傳人物類聚』·『御定書傳人物類聚』·『書傳參評』·『洪範衍義』)가 있다.

중 관각본인 내부각본은 명대 중앙정부 내의 전문출판기구인 경창(經廠)에서 간행된 책으로, 조선시대 세종대에는 세 차례 수입되었다. 그리고 이 『삼부대전』은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유계(有界), 10행(行)22자(字), 대흑구(大黑口),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의 판식을 하고 있다.<sup>10)</sup>

명대 『서전대전』은 10+(1)권(卷) 10+(1)책(冊)으로<sup>11)</sup>, 본래 『서전대전』의 모태가 되는 『서집전』전(全)6권보다 4권이 더 많게 구성되었다. 이 책은 진력(陳櫟)의 『상서집전찬소(尙書集傳纂疏)』·진사개(陳師凱)의 『서채전방통(書蔡傳旁通)』의 영향을 받아, 경학사에서 논란이 되는 『오경대전』 중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sup>12)</sup> 현재 규장각(奎章閣) 한국학연구원·고려대학교에 있고, 중국에는 북경사범대학도서관(北京師範大學圖書館)·호남성도서관(湖南省圖書館)·남개대도서관(南開大圖書館)·천진시도서관(天津市圖書館) 등에 소장되어 있다.<sup>13)</sup> 이러한 명대 『서전대전』의 판식은 10행22자·8행14자로, 다음 표1과 같다.

표1-명대 목판본 『서전대전』의 형태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大全	胡廣(明)	未詳	14世紀 後半-17 世紀 中	木板本 (明板)	奎章閣 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도서관	四周雙邊 半郭, 有界, 10行22字, 大黑口, 內向黑魚尾
2	書傳 大全	胡廣(明)	未詳	14世紀 後半-15 世紀 初	木板本 (明板)	奎章閣 한국학연구원	기타(다양한 종류의 한자수 존재)

## 2. 한국본 『서전대전』

일반적으로 책은 사본(寫本)과 간인본(刊印本)으로 구분하는데, 사본이

10) 唐潤熙, 「韓國所藏 中國本 『四書大全』 版本 小考」, 『중국어문학논집』 第43號(중국어 문학연구회, 2007b), 378쪽; 唐潤熙, 「『四書大全』 판본의 변화와 程朱理學의 演變」,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0號(중국어문논역학회, 2007a), 268-269쪽. 현재 明代 內府刻本은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 소장된 『詩傳大全』·『禮記集說大全』 등과 奎章閣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書傳大全』 등을 통해서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 소장된 『詩傳大全』·『禮記集說大全』의 卷首面에는 ‘欽文之璽’가 卷末面에는 ‘朝鮮王寶’가 날인되어 있어, 世宗代 중국 황제로부터 직접 받은 內府刻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11) 송일기(2014), 앞의 논문, 101쪽.

12) 李康範(2012), 앞의 논문, 439쪽.

13) 송일기(2014), 앞의 논문, 102쪽.

필사자료로 직접 수기(手記)한 책들인 데 반해, 간인본은 목판(木板)·활판(活版)·석판(石版)·등사판(謄寫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간인한 모든 책을 총칭한다.<sup>14)</sup>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간인본 중에 목판본(木板本)과 활자본(活字本)이 주로 간행되어서, 본고에서는 『서전대전』의 간인본 계통을 살펴보기 위하여 간인본 중 목판본·활자본에 국한하여 전수(全數)조사를 행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목판본과 활자본을 간행한 주요 기관으로는 중앙관서·특수관서·지방관서로 구분되어<sup>15)</sup>, 간인본의 성격에 따라 역할을 다르게 수행하였다. 중앙관서인 교서관(校書館)<sup>16)</sup>·주자소(鑄字所)·내각(內閣)[규장각(奎章閣)] 등은 대량 유통의 경우에는 목판본을 제작하였고, 소량 유통의 경우에는 활자본을 제작하여 전국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특수관서는 해당 관서들의 성격에 따라 독자적으로 간인하여 유통하였으며, 감영(監營)·부(府)·목(牧)·군(郡)·현(縣)에 있는 지방관서[기영(畿營)·금영(錦營)·원영(完營)·영영(嶺營)·원영(原營)·기영(箕營)·해영(海營)·함영(咸營) 등은 중앙의 간인본을 복각(覆刻)하거나 자체 제작을 하여 유통하였다.<sup>17)</sup>

그래서 유가 경전으로서 과거시험의 교재로서 중시되었던 『서전대전』은 조선 전기에 왕명(王命)으로 중앙관서와 지방관서 등에서 적극적으로 간행·유통되었으며, 조선 후기에 들어와 관판본(官版本) 외에 방각본 등으로 확대되어 더욱 간행·유통이 활발해졌다. 그런데 과거시험의 필수서로서 수요가 지극히 많았기에, 한정된 목판·활자(活字)를 최대한

14) 천혜봉, 『한국서지학』(민음사, 2010), 146-147쪽. 이하 본고의 刊印本들에 대한 배경적 설명은 별도의 인용표시가 없더라도, 모두 천혜봉의 『한국서지학』을 직·간접적으로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15) 국내 官版本으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刊印本들이 주류를 이룬다. 고려시대에는 중앙관서의 刊印本인 祕書省本(書籍鋪本)·大藏都監本·教藏都監本과 지방관서의 刊印本인 東京留守本(慶州)·西京留守本(平壤)·忠州牧本(忠州)·安西都護府本(海州)·知京山府本(星州)·知南原府本(南原)·全州牧本(全州)·羅州牧本(羅州)·晉州牧本(晉州)·福州牧本(安東)·尙州牧本(尙州)이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중앙관서의 刊印本인 刊經都監本·校書館本·內閣本·訓鍊都監本·觀象監本·司譯院本·學部刊本과 특수관서의 간본인 宗簿寺刊本·內醫院刊本·惠民署刊本·掌樂院刊本·軍器寺刊本과 지방관서의 관본인 地方官版本이 있다.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探求堂, 1974), 93-120쪽.

16) 太宗이 고려의 校書監의 명칭을 1404년 校書館으로 개칭하였는데 이후 1466년 典校署로 재개칭하였다가 1484년에 다시 校書館으로 환원시켰다.

17) 천혜봉(2010), 앞의 책, 205쪽.



활용해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국내 소장된 현존본 『서전대전』에는 재간행일에 대한 표시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또한 결본(缺本)이 있는 『서전대전』의 경우에는 최초의 간행시기·간행지·간행자 등의 간인본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소장처나 연구자마다 추정하는 견해가 다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간행일은 고려하지 않고 현존본 『서전대전』의 목기(木記) 등에 나타난 간인본의 간행시기·간행지만을 조사하고 분류하였으며, 기존의 소장처나 연구자의 견해를 수용하되 실제 열람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다 중시하였다. 이는 각 소장처마다 서지 기술에 대한 표기의 차이로 다른 판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물조사 등을 통해 동일한 판본으로 확인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 작성 시 필요한 주요 계통을 포함하여, 실시하지 못한 판본들 중에서 각 소장처 간의 서지 기술이 상이하더라도 동일 판종으로 여겨지는 것은 동일본 계통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간인면(刊印面)의 인쇄 상태가 흐리거나 번져, 쌍변(雙邊)이 단변(單邊)으로 바뀌었거나 2엽화문어미(葉花紋魚尾)가 1엽화문어미로 바뀐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들도, 현재 보여지는 상태 그대로인 단변·1엽화문어미 등으로 판단하기로 정하였다.

## 1) 목판본

목판본은 관판본(간경도감본(刊經都監本) 포함)·사찰판본(寺刹板本)·국왕(國王) 및 왕실판본(王室板本)·서원판본(書院板本)·사가판본(私家板本)·방각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현존본 『서전대전』은 임진왜란 이전의 관판본과 임진왜란 이후의 관판본·방각본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서전대전』의 목판본의 형태는 명나라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재간행한 목판본 10항22자와 이후 활자본의 영향을 받은 10항18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 (1) 임진왜란 이전

세종대에 수용한 『서전대전』은 국내에서 재간행되고 널리 유포되어, 임진왜란 이후의 간인본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임진왜란 이전의 『서전대전』 간인본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목판본이 전해진다. 그리고 이 간인본에는 권말에 “宣德丁未冬十有二月甲寅 [···] 世子貳師臣下季

良拜手稽首敬跋”이라고 적힌 변계량(卞季良)의 발문(跋文)이 수록되어 있어, 1427년(세종 9)에 명나라에서 수입된 『서전대전』을 가지고, 왕명으로 경상도 감영에서 목판으로 제작하여 반포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현존본 세종대 『서전대전』의 판식은 10행22자로, 다음 표2와 같다.

표2- 세종대 『서전대전』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大全	胡廣(明)	未詳	世宗 9 (1427)	木板本 (明板翻刻)	국립중앙도서관	四周雙邊 半郭, 有界, 10行22字, 黑口, 內向黑魚尾

(2)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 이후의 목판본으로는 내각·영영·완영·영변부(寧邊府) 등의 관판본 외에 하경룡(河慶龍) 등의 방각본이 전해지고 있다.

『서전대전』의 내각본(內閣本)은 10행18자·영영본(嶺營本)은 10행22자와 10행18자·완영본(完營本)은 10행22자·영변부본(寧邊府本)은 10행18자·하경룡본(河慶龍本)은 10행22자가 대부분인데, 20세기에도 칠서방본(七書房本)은 10행22자·광동서국본(光東書局本)은 10행18자·신구서림본(新舊書林本)은 10행18자로 전해지고 있어서, 『서전대전』의 목판본이 크게 10행22자 계통과 10행18자 계통으로 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① 내각장판(內閣藏板)(내각본)

관판본으로서 내각본은 조선 후기 1776년(정조 1)에 설치된 내각의 규장각에서 간행한 책을 말한다. 학문 연구의 진작을 위해 내각의 출판 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출판을 담당하고 있던 관서인 교서관(校書館)을 외각(外閣)으로 편입시켜 내각의 주관하에 간행 업무를 행하게 하였다. 당시 목판본(내각장판)과 활자본(정유자(丁酉字)·한구자(韓構字)·생생자(生生字)·정리자(整理字))을 제작하여, 정교하고 세밀하게 관판본을 간행하였다.<sup>18)</sup> 이러한 현존본 『서전대전』의 내각장판 판식은 10행18자로, 다음 표3과 같다.

18) 일반적으로 內閣藏板은 丁酉字本 등 활자본의 覆刻本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3- 내각장판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대소	胡廣(明)	內閣	純祖20 (1820) 외 다수	木板本	奎章閣 한국학연구원 외 다수	四周雙邊 半郭, 有界, 10行18字, 內向2葉花紋魚尾 외 다수

② 영영장판(嶺營藏板)(영영본)

관판본으로서 영영본은 팔도(八道) 감영(監營) 중 하나인 영영(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간행한 책을 말한다. 현재 전해오는 문헌상으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대량 보급을 위하여, 중앙관서에서 지방관서에 명하여 책판을 새겨 중앙으로 올려 보내게 하여 중앙관서에서 직접 간행·유통하거나, 지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책판을 보관하면서 필요시 간행·유통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존본 『서전대전』의 영영장판 판식은 10행22자·10행18자 등으로, 다음 표4와 같다.

표4- 영영장판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대소	胡廣(明)	嶺營	純祖26 (1826) 외 다수	木板本	奎章閣 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학술정보원 외 다수	四周雙邊 半郭, 有界, 10行22字, 內向花紋魚尾(板式 不同) 외 다수
2	書傳 대소	胡廣(明)	嶺營	純祖26 (1826) 외 다수	木板本	남평문씨 인수문고, 시우당종택 외 다수	四周單邊 半郭, 有界, 10行18字, 內向2葉花紋魚尾 외 다수
3	書傳 대소	胡廣(明)	嶺營	純祖26 (1826) 외 다수	木板本	奎章閣 한국학연구원 외 다수	四周單邊 半郭, 有界, 20行18字, 上下向2葉花紋魚 尾 외 다수

③ 완영장판(完營藏板)(완영본)

관판본으로서 완영본은 팔도 감영 중 하나인 완영(전라감영(全羅監營))에서 간행한 책을 말한다. 현재 원광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서전대전』은 ‘사주쌍변 반곽, 유계, 10행22자, 내향2엽화문어미’의 판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존본 『서전대전』의 완영장판 판식은 10행22자로, 다음 표5와 같다.

표5- 원영장판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大全	胡廣(明)	完營	未詳	木板本	원광대학교 도서관	四周雙邊 半郭, 有界, 10行22字, 內向2葉花紋魚尾

④ 영변부장판(寧邊府藏板)(영변부분)

관판본으로서 영변부분은 부아(府衙) 중 하나인 영변부에서 간행한 책을 말한다. 이러한 현존본 『서전대전』의 영변부장판 판식은 10행18자로, 다음 표6과 같다.

표6- 영변부장판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大全	胡廣(明)	寧邊府	未詳	木板本	국립중앙도서관, 경기대학교 도서관	四周雙邊 半郭, 有界, 10行18字, 內向混葉花紋魚尾

⑤ 하경룡장판(河慶龍藏板)(하경룡본)

방각본(민간인이 영리(營利)의 목적으로 간행한 책)으로서, 하경룡본은 호남지방의 방각본인 완판(完板)·태인판(泰仁板)·금성판(錦城板) 중에 완판에 속하는 책을 말한다. 본래 방각본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17세기에 걸쳐 진작되어, 19세기에 서울의 경판본(京板本)을 비롯하여 안성(安城)·전주(全州)·태인(泰仁)·금성(錦城)·나주(羅州)·대구(大邱) 등 지방의 방각본들이 성행하였다.<sup>19)</sup> 이러한 현존본 『서전대전』의 하경룡장판 판식은 10행22자 등으로, 다음 표7과 같다.

표7- 하경룡장판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大全	胡廣(明)	河慶龍	純祖 10 (1810) 외 다수	木板本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경기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학술정보원 외 다수	四周雙邊 半郭, 有界, 10行22字, 內向2葉花紋魚 尾 외 다수

19) 천혜봉(2010), 앞의 책, 252-253쪽; 金斗鍾(1974), 앞의 책, 454-456쪽.

## ⑥ 기타

표8-기타 목판본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대소	胡廣(明)	未詳	哲宗8 (1857)	木板本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외 다수	四周單邊 半郭, 有界, 10行20字, 無魚尾 외 다수
2	書傳 대소	胡廣(明)	未詳	高宗22 (1855) 외 다수	木板本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도서관 외 다수	四周單邊 半郭, 有界, 11行21字, 內向2葉花 紋魚尾 외 다수

### (3) 20세기 서포(書鋪)

한국의 근대 출판은 크게 개화기(1883-1910)와 일제강점기(1910-1945)로 구분하는데, 전대(前代)와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판권지의 출현·방각본의 쇠퇴·출판사 간의 협력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서적을 출판한 민간 서포들은 서적의 간행·판매·대여 등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 서포는 본래 조선시대 서사(書肆)에서 시작되어, 조선 말기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되다가 대구·전주 등의 지방에도 나타나 성행하였다.<sup>20)</sup>

### ① 칠서방본(七書房本)

칠서방본은 전주의 민간 서포(문명서관(文明書館)·서계서포(西溪書鋪)·완흥사서포(完興社書鋪)·다가서포(多佳書鋪)·창남서관(昌南書館)·칠서방(七書房)·양책방(梁冊房)·일심당서포(一心堂書鋪)) 중에 하나인 칠서방에서 출판한 책을 말한다. 칠서방은 1916년에서 1918년 사이에 주로 칠서(七書, 사서삼경)를 출판하였는데, 1870년 전주의 하경룡의 책관을 사용하여 권말(卷末)에는 ‘세경오중춘개간(歲庚午仲春開刊)’이라고 되어 있는 간기(刊記)와 그 하단에 ‘전주부하경룡장판(全州府河慶龍藏板)’이라는 전자(篆字)로 된 인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21)22)</sup> 이러한 현존본 『서전대전』의 칠서방본 판식은 10행22자로, 다음 표9와 같다.

20) 옥영정, 「非小說 漢文坊刻本 刊行에 대한 書誌的 高찰」, 『冽上 古典研究』 第31輯 (열상고전연구회, 2010), 214-230쪽; 강혜영, 「20세기 전반의 전주 지방 서적 간행 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第41輯(서지학회, 2008), 88-91쪽.

21) 옥영정(2010), 앞의 논문, 214-230쪽; 강혜영(2008), 앞의 논문, 98-112쪽; 김기화, 「〈七書房〉의 출판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第43輯(서지학회, 2009), 177-204쪽.

22) 일반적으로 七書房本은 內閣藏板 등의 覆刻本으로도 알려져 있다.

표9- 칠서방본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大全	胡廣(明)	七書房 외 다수	大正5 (1916)	木板本	경기대학교 도서관, 사우당중택, 국립중앙도서관 외 다수	四周雙邊 半郭, 有界, 10行22字, 內向2葉花紋魚尾 외 다수

② 경성본(京城本)

위의 칠서방본의 판권면에 보이는 경성 소재지의 서포들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편집 겸 간행지는 판권과 관련된 동업관계로 짐작된다. 이러한 현존본 『서전대전』의 경성본 판식은 10행18자로, 다음 표10과 같다.

표10-경성본[광동서국(光東書局)·회동서관(匯東書館)·신구서림(新舊書林)]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大全	胡廣(明)	新舊書林 외 다수	大正7 (1918)	木板本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외 다수	四周單邊 半郭, 有界, 10行18字, 上下向2葉花紋魚尾

2) 활자본

활자본은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목활자본(木活字本)·도활자본(陶活字本)·포활자본(匏活字本)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현존본 『서전대전』은 임진왜란 이전의 금속활자본[갑인자(甲寅字)·계유자(癸酉字)]과 임진왜란 이후의 금속활자본[무오자(戊午字)·무신자(戊申字)·현종실록자(顯宗實錄字)·운각인서체자(芸閣印書體字)·임진자(壬辰字)·정유자(丁酉字)·목활자본[훈련도감자(訓鍊都監字)·교서관자(校書館字)]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서전대전』의 활자본 형태는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간행한 활자본의 10행18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1) 금속활자본

금속을 녹여 주형에 부어 제작한 활자들을 조판하여 간인한 책을 말한다. 이 금속활자본은 주조된 활자의 금속 성분에 따라서, 동활자본(銅活字本)·연활자본(鉛活字本)·철활자본(鐵活字本)으로 구별한다.

① 무오자본(戊午字本)

광해군(光海君) 10년(1618)에 주성한 동활자인 무오자(戊午字)로 간행한 책을 말한다. 이 무오자는 갑인자(甲寅字)<sup>23)</sup>를 세 번째로 개주(改鑄)하여 삼주갑인자(三鑄甲寅字)라고 칭하는데, 인조(仁祖) 1년(1623)에 사간(司諫)인 정온(鄭蘊)에게 내사한 『서전대전』이 발견되어 고증이 되었다. 이 활자의 자형(字形)은 갑인자를 개주한 활자 중에 가장 거칠고 둔탁하며, 전래본이 드물어 가장 입수하기 어려운 활자로 평가받고 있다.<sup>24)</sup> 이러한 현존본 『서전대전』의 무오자본 판식은 10행18자로, 다음 표11과 같다.

표11-무오자본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大全	胡廣(明)	未詳	仁祖1 (1623) 외 다수	金屬活字本	성암고서박물관 외 다수	四周雙邊 半郭, 有界, 10行18字, 內向3葉花紋魚尾 외 다수

② 무신자본(戊申字本)

현종(顯宗) 9년(1663)에 김좌명(金佐明)이 주성한 동활자인 무신자로 간행한 책을 말한다. 이 무신자는 갑인자를 네 번째로 개주하여 사주갑인자(四鑄甲寅字)라고 칭하는데, 자형은 갑인자를 개주한 활자로서 정교하지 못하나 무오자보다 전래본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현존본 『서전대전』의 무신자본 판식은 10행18자로, 다음 표12와 같다.

표12-무신자본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大全	胡廣(明)	未詳	顯宗年間 외 다수	金屬活字本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외 다수	四周單邊 半郭, 有界, 10行18字, 內向2葉花紋魚尾 외 다수

23) 조선시대 여섯 차례에 걸쳐 改鑄되어 甲寅字(初鑄甲寅字, 世宗)를 시작으로 庚辰字(再鑄甲寅字, 宣祖)·戊午字(三鑄甲寅字, 光海君)·戊申字(四鑄甲寅字, 顯宗)·壬辰字(五鑄甲寅字, 英祖)·丁酉字(六鑄甲寅字, 正祖)가 주조되었다.

24) 천혜봉(2010), 앞의 책, 309-312쪽.

③ 운각인서체자본(芸閣印書體字本)

본래 숙종 초(肅宗初, 1684년 이전)에 명나라 인서체(印書體) 간인본의 자본(字本)으로 주성한 동활자인 전기운각인서체자(前期芸閣印書體字)가 있었는데, 재료가 무쇠여서 자체가 좀 굵고 정연하지 않으며 거친 편이다. 그리고 이것을 경종 초(景宗初, 1723년 이전)에 재구조한 것을 후기운각인서체자(後期芸閣印書體字)라고 하는데, 후기운각인서체자는 전기의 것에 비해 자형은 정연하고 가로획이 가늘어져 인서체다운 형태가 되었으나, 재료가 무쇠여서 전기 활자와 같이 섬세하지 못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다. 그런데 이 후기운각인서체자는 영조(英祖) 후기를 지나 정조(正祖)를 거치면서 보자(補字)가 혼용되고 활자가 이지러져 점차 인쇄 상태가 조잡해져서, 순조(純祖) 이후에는 조잡한 상태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기운각인서체와 후기운각인서체로 간행한 책을 운각인서체자본(芸閣印書體字本)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현존본 『서전대전』의 운각인서체자본 판식은 10행20자로, 다음 표13과 같다.

표13-운각인서체자본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大全	胡廣(明)	校書館 외 다수	肅宗年間 외 다수	金屬活字本	고려대학교도서관 외 다수	左右雙邊半郭, 有界, 10行20字, 內向2葉花紋魚尾 외 다수

④ 정유자본(丁酉字本)

정조 1년(1777)에 주성한 동활자인 정유자로 간행한 책을 말한다. 이 정유자는 갑인자를 여섯 번째로 개주하여 육주갑인자(六鑄甲寅字)라고 칭하는데, 규장각의 본원인 내각에 두고 사용하다가, 정조 18년(1794)에 창경궁(昌慶宮)의 옛 홍문관(弘文館)에 설치한 주자소(鑄字所)로 이관되었다. 이후 철종 8년(1857) 주자소의 화재로 활자가 모두 소실되었다.<sup>25)</sup> 이러한 현존본 『서전대전』의 정유자본 판식은 10행18자로, 다음 표14와 같다.

25) 천혜봉(2010), 위의 책, 318-322쪽.



표14-정유자본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大全	胡廣(明)	未詳	正祖 年間	金屬活 字本	국립중앙도서관, 안동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학술정보 보원 외 다수	四周單邊 半郭, 有界, 10行18字, 上下向2葉花紋魚尾 외 다수

⑤ 기타

표15-기타 활자본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大全	胡廣(明)	未詳	未詳	金屬活 字本	단국대학교 울곡기념도서관 외 다수	四周雙邊 半郭, 有界, 10行18字, 內向2葉花紋魚尾 외 다수

(2) 목활자본

나무에 새겨 제작한 활자들을 조판하여 간인한 책을 말한다.

① 훈련도감자본(訓練都監字本)

임진왜란 직후에 설치된 병영(兵營)인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 간행한 책을 말한다. 훈련도감자본(訓練都監字本)은 주로 목활자인데, 이전에 주조했던 활자들을 모방한 목활자본이 대부분이다. 이 훈련도감자본은 임진왜란 직후부터 병자호란 직후까지, 거의 반세기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러한 현존본 『서전대전』의 훈련도감자본 판식은 10행18자·10행22자로, 다음 표16과 같다.

표16-훈련도감자본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大全	胡廣(明)	未詳	光海年間- 仁祖年間	木活字本	성암고서박물관, 고려대학교도서관 외 다수	四周雙邊 半郭, 有界, 10行18字, 內向3葉花紋魚尾 외 다수

② 기타

표17-기타 목활자본

No	서명	편저자	간인지	간인년	판종	소장처	판식
1	書傳 大全	胡廣(明)	未詳	純祖20 (1820)	木活字本	경기대학교 도서관 외 다수	四周雙邊 半郭, 有界, 10行22字, 內向2葉花紋魚尾 외 다수
2	書傳 大全	胡廣(明)	未詳	未詳	木活字本	경상대학교 도서관	四周單邊 半郭, 有界, 10行18字, 內向花紋魚尾
3	書傳 大全	胡廣(明)	未詳	未詳	木活字本	국립중앙도서관	四周單邊 半郭, 有界, 10行20字, 內向2葉花紋魚尾

IV. 『서집전』·『서전대전』 간의 원문서지학적 비교

조선시대 세종대에 수용한 명대 내부각본 『서전대전』을 모태로 하여, 국내에서 재간행된 목판본·활자본이 다양하게 간행·유통되었다. 이 『서전대전』은 조선시대 전기부터 말기까지 과거시험의 주요 교재로서 교수학습된 연유로, 관판본·사가본(私家本)의 다양한 형태로 매우 많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서전대전』의 간행본들은 간행시기·간행지에 따라 상이(相異)할 수 있으므로, 국내 소장된 『서전대전』 간의 이동(異同)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명대 『서전대전』은 표절시비 등의 제반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조선시대에도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에 송대 『서집전』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종대에 수입한 명대 내부각본 『서전대전』·세종대 간행된 『서전대전』·세종대 이후로부터 임진왜란 이전 간행된 『서전대전』·임진왜란 이후 간행된 『서전대전』과 송대 『서집전』과의 비교 연구를 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종대에 수입된 명대 내부각본 『서전대전』이나 세종대 이후로부터 임진왜란 이전 간행된 『서전대전』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세종대에 수입된 명대 내부각본 『서전대전』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중국본인 명대 내부각본 『서전대전』으로 대신하고, 세종

대 이후부터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서전대전』은 임진왜란 직후 간행된 무오자본으로서 앞서 살펴본 개인 소장본 『서전대전』으로 대신해서 비교하였다. 그리고 송대 『서집전』은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된 송대 『주문공정정문인책구봉서집전』<sup>26)</sup>으로 하고, 아울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청대 『서경』과도 원문을 비교하였다.

## 1. 구성체제 비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중국본인 명대 내부각본 『서전대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한국본인 세종대 목판본 『서전대전』· 개인 소장본인 무오자본 『서전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藏書閣)에 소장된 한국본인 정유자본 『서전대전』을 가지고 구성체제를 비교하였다.<sup>27)</sup>

그 결과, 영본(零本)인 세종대 목판본 『서전대전』· 무오자본 『서전대전』을 제외하고 모두 권수(卷數)가 전10권10책으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구성체제에서는 각기 차이를 보인다. 명대 내부각본 『서전대전』에는 별도의 『서전대전범례(書傳大畧凡例)』라는 책이 있어 「서전대전범례」· 「서전대전도(書傳大畧圖)」 등을 편재하고 제10책 말미에 「서서(書序)」를 포함하게 한 것과는 다르게, 세종대 목판본 『서전대전』 제10책 말미에는 「서서」가 아닌 「주상전하흠숭(主上殿下欽崇)」과 「서전대전도」를 삽입하였다. 또한 정유자본 『서전대전』에는 별도의 『서전대전범례』라는 책이 없고, 대신 제1책에 「서전대전범례」· 「서전대전도」 등을 편성하였다.

이로 볼 때, 명대 내부각본 『서전대전』의 구성체제를 기준으로 삼되,

26) 『朱文公訂正門人蔡九峰書集傳』은 현재 가장 善本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呂遇龍가 淳祐七年에 蔡杭이 宋理宗에게 진상한 『書集傳』(經進本)을 근거로 판단할 것이다. 南宋 시대에는 刊印本이 매우 많아서 官刻·家刻·坊刻의 세 종류로 분류하는데, 이 『朱文公訂正門人蔡九峰書集傳』은 정교한 宋代 官刻本에 속한다. 또한 呂遇龍이 판단하기 전에 이미 『書集傳』의 판각본이 적지 않았으므로, 『朱文公訂正門人蔡九峰書集傳』은 蔡氏 『書集傳』이 진상된 후의 첫 번째 刊印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王春林, 『書集傳』版本源流, 『中國哲學史』第2期, 中國人民大學哲學系, 2010, 101-104쪽). 이 『朱文公訂正門人蔡九峰書集傳』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27) 『書誌學研究』第70輯 「국내 주요 尙書類 문헌 연구」에서 김유미는 『書經』(『書集傳』)의 구성체제를 [圖1]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朱文公訂正門人蔡九峰書集傳』의 구성체제도 이와 동일하다.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형해서 간행·유통한 것을 알 수 있다.

## 2. 내용 비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세종대 목판본 『서전대전』은 제10책만이 있고, 개인 소장본인 무오자본 『서전대전』은 제7책만이 현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명본(明本) 『서전대전』 제10책·세종대 목판본 『서전대전』 제10책과 무오자본 『서전대전』 제7책을 임진왜란 이후의 정유자본 『서전대전』 제7책·제10책과 각기 비교하였다. 그리고 아울러 송대 『주문공정정문인채구봉서집전』·청대 『서경』은 모두 제6책(『서전대전』 제10책에 해당)에 한해서만 비교를 행하였다.

이때에 오직 문자만을 비교 대상으로 하고, 표점은 책마다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어 본고에서는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동자(同字)·약자(略字)·속자(俗字)·간체자(簡體字)·통자(通字)·이체자(異體字) 등은 동일한 문자로 간주하여,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또한 ‘ㄱ·ㄷ·ㅌ’의 경우는 자형의 형태가 불분명한 것이 많아서 전문적으로 면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어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 (1) 경문(經文) 비교

#### ① 변형된 부분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문의 차이는 많지 않다. 이는 경문(經文)을 중시하여 교감(교수)을 세밀히 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대체로 송대 『주문공정정문인채구봉서집전』 제6책과 청대 『서경』 제6책의 경문(經文)이 일치하였고, 명대 내부각본 제10책과 세종대 목판본 『서전대전』 제10책이 일치하였다. 특히 명대 내부각본과 세종대 목판본 『서전대전』의 경우는, 세종대 목판본 『서전대전』이 명대 내부각본의 복각본(覆刻本)이어서 문자만이 아니라 자형도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8-『서집전』·『서전대전』 간의 경문 비교(변형된 부분)

册	書名	『書集傳』		『書傳大全』			
		宋本 『朱文公訂 正門人蔡九 峰書集傳』	清本『書經』	明本 內府刻本 『書傳大全』	世宗代 木板本 『書傳大全』	戊午字本 『書傳大全』	丁酉字本 『書傳大全』
7	旅獒						
	金滕					7. …, 用能定爾于孫子下地 …. 16. …, 以啓金滕之書 乃得得周公所自以爲功 代武王之說.	7. …, 用能定爾子孫于下地 …. 16. …, 以啓金滕之書 乃得得周公所自以爲功 代武王之說.
	大誥					11. …, 旣底(刈)法 厥子乃弗肯堂 底肯構 ….	11. …, 旣底(刈)法 厥子乃弗肯堂 底肯構 ….
	微子之命						
	康誥					15. …, 啓不畏死 罔丕愆. 16. …, 大不友于弟 惟弟茲 …. 17. …, 矧惟外庶于訓人 惟厥正人 ….	15. …, 啓不畏死 罔弗愆. 16. …, 大不友于弟 惟弟(罔)茲 …. 17. …, 矧惟外庶于訓人 惟厥正人 ….
	酒誥						
	梓材					4. …, 惟其陳脩 爲厥疆畝 ….	4. …, 惟其陳脩 爲厥疆畝 ….
10	畢命	13. …, 澤潤生民 ….	13. …, 澤潤生民 ….	13. … 澤潤生民 ….	13. …, 澤潤生民 ….		13. …, 澤潤生民 ….
	君牙						
	罔命						
	呂刑						
	文侯之命						
	秦誓						

그리고 정유자본 『서전대전』 제7책과 제10책은 무오자본 『서전대전』 제7책을 비롯한 다른 본(本)들과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가 많지는 않았다. 특히 무오자본 『서전대전』 제7책과 정유자본 『서전대전』 제7책의 경우는, 대부분의 문자와 그 자형까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아직까지 초주(初鑄) 갑인자본(甲寅字本) 『서전대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초주 갑인자본 『서전대전』·무오자본 『서전대전』·정유자본 『서전대전』 등의 갑인자본 계통의 『서전대전』들은 대부분 문자와 자형도 매우 유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단지 소량의 문자의 차이는 간행시기에 따라 교감의 차이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간행시기가 후대로 갈수록 교감의 정밀도 역시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명대 내부각본 『서전대전』 제10책과 정유자본 『서전대전』 제10책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대 내부각본 『서전대전』이 가진 표절시비 등의 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시대에 독자적으로 교감과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올바른 『서전대전』을 편찬하려고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세종대 경자자본(庚子字本) 『서전대전』과 초주 갑인자본 『서전대전』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세종대에 이미 『서전대전』을 교정하려는 시도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생략된 부분: 이들 간 경문의 생략은 없었다.

## (2) 주해(注解) 비교

『서전대전』은 『서집전』에서 채침의 주해(注解)[이하 대주(大注)]에 송원(宋元)시대의 제가(諸家)들의 주해[이하 세주(細注)·보충주(補充注)]를 더한 2단체제이다.

### ① 대주 비교

청대 『서경』은 송대 『주문공정정문인채구봉서집전』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음운표기<sup>28)</sup>가 더해져 있다. 이러한 대주에 있는 음운표기는 『서전대전』에도 나타나 있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청대 『서경』에만 있는 음운표기에 대한 비교는 생략하였다.

28) 예를 들면, “癯多旱反守舒究反.” 등이다.

다음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주의 차이는 경문보다는 많고 세주보다는 적다. 이는 대주가 경문보다는 덜 중시되었으나, 본래 『서집전』의 주해로서 세주보다는 중요하다고 여기며 교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19-『서집전』·『서전대전』 간의 주해 비교(대주)

册	書名	『書集傳』		『書傳大全』			
		宋本 『朱文公訂 正門人蔡九 峰書集傳』	清本 『書經』	明本 內府刻本 『書傳大全』	世宗代 木板本 『書傳大全』	戊午字本 『書傳大全』	丁酉字本 『書傳大全』
7	旅獒					8. …, 周穆王 得白狐白鹿 ….	8. …, 周穆王 得白狼白鹿 ….
	金縢					5. …, 以輪 危急 其精神 感動 ….	5. …, 以紆 危急 其精神 感動 ….
	大誥						
	微子之命						
	康誥					16. …, 而 得罪焉 則天之與我民彝 必大泯滅而 紊亂矣 …. 19. …, 忌則 有所不取 …. 21. …, 雖 屢而未能使 之上同乎治 明思天其殛 罰我 ….	16. …, 以 得罪焉 則天之與我民彝 必大泯滅而 紊亂矣 …. 19. …, 忌則 有所不取 …. 21. …, 雖 屢而未能使 之上同乎治 明思天其罰 殛我 ….
	酒誥						
	梓材					3. …, 率由 是而容蓋之 也. …. 7. …, 和慥 和悅之也 ….	3. …, 率由 是而容蓋之 也. …. 7. …, 慥和 悅之也 ….
畢命	8. …, ■ 29) 完具 於己之謂體.	8. …, 趣完具 而已之謂體.	8. …, 趣完具 而已之謂體.	8. …, 趣完具 而已之謂體.		8. …, 趣完具 而已之謂體.	

10	畢命	15. 蘇氏曰 □弗克者 ….	15. 蘇氏曰 曰弗克者 ….	15. 蘇氏曰 曰弗克者 ….	15. 蘇氏曰 曰弗克者 ….	15. 蘇氏曰 曰弗克者 ….
	君牙	• …, 此其 告命也. 7. …, 君牙 豈其後耶.	• …, 此其 詰命也. 7. …, 君牙 豈其後邪.	• …, 此其 詰命也. 7. …, 君牙 豈其後耶.	• …, 此其 詰命也. 7. …, 君牙 豈其後耶.	• …, 此其 詰命也. 7. …, 君牙 豈其後耶.
	罔命	• …, 穆王 之用太僕正 …. 2. …, 僕從 太僕羣僕 凡 從王者. 4. …, 周禮 太僕下大夫 也. …, 漢孔 氏 以爲太御 中大夫. 蓋 周禮 太御最 長 …. 5. 媚者 諛悅 小人也. 6. …, 亦莫 或齟齬其間 …. 9. …, 果出 於僕御之間 …, 心操捨 之無常 可懼 哉.	• …, 穆王 之用太僕正 …. 2. …, 僕從 太僕羣僕 凡 從王者. 4. …, 周禮 太僕下大夫 也. …, 漢孔 氏 以爲太御 中大夫. 蓋 周禮 太御最 長 …. 5. 媚者 諛說 小人也. 6. …, 亦莫 或齟齬其間 …. 9. …, 果出 於僕御之間 …, 心操捨 之無常 可懼 哉.	• …, 穆王 之用太僕正 …. 2. …, 僕從 太僕羣僕 凡 從王者. 4. …, 周禮 太僕下大夫 也. …, 漢孔 氏 以爲太御 中大夫. 蓋 周禮 太御最 長 …. 5. 媚者 諛悅 小人也. 6. …, 亦莫 或齟齬其間 …. 9. …, 果出 於僕御之間 …, 心操捨 之無常 可懼 哉.	• …, 穆王 之用太僕正 …. 2. …, 僕從 太僕羣僕 凡 從王者. 4. …, 周禮 太僕下大夫 也. …, 漢孔 氏 以爲太御 中大夫. 蓋 周禮 太御最 長 …. 5. 媚者 諛悅 小人也. 6. …, 亦莫 或齟齬其間 …. 9. …, 果出 於僕御之間 …, 心操捨 之無常 可懼 哉.	• …, 穆王 之用太僕正 …. 2. …, 僕從 太僕羣僕 凡 從王者. 4. …, 周禮 太僕下大夫 也. …, 漢孔 氏 以爲太御 中大夫. 蓋 周禮 太御最 長 …. 5. 媚者 諛悅 小人也. 6. …, 亦莫 或齟齬其間 …. 9. …, 果出 於僕御之間 …, 心操捨 之無常 可懼 哉.
呂刑	1. …, 耄老 □昏亂之稱 …, 車轍馬 跡…, 猶禹曰予荒 度土功…. 6. …, 則不 求之渺茫冥 昧之間 …, 糺烝濟亂 …, 民神糺烝 …, 司天以屬神	1. …, 耄老 而昏亂之稱 …, 車轍馬 跡…, 猶禹曰予荒 度土功…. 6. …, 則不 求之渺茫冥 昧之間 …, 糺烝濟亂 …, 民神糺烝 …, 司天以屬神	1. …, 耄老 而昏亂之稱 …, 車轍馬 跡…, 猶禹曰予荒 度土功…. 6. …, 則不 求之渺茫冥 昧之間 …, 糺烝濟亂 …, 民神糺烝 …, 司天以屬神	1. …, 耄老 而昏亂之稱 …, 車轍馬 跡…, 猶禹曰予荒 度土功…. 6. …, 則不 求之渺茫冥 昧之間 …, 糺烝濟亂 …, 民神糺烝 …, 司天以屬神	1. …, 耄老 而昏亂之稱 …, 車轍馬 跡…, 猶禹曰予荒 度土功…. 6. …, 則不 求之渺茫冥 昧之間 …, 糺烝濟亂 …, 民神糺烝 …, 司天以屬神	1. …, 耄老 而昏亂之稱 …, 車轍馬 跡…, 猶禹曰予荒 度土功…. 6. …, 則不 求之渺茫冥 昧之間 …, 糺烝濟亂 …, 民神糺烝 …, 司天以屬神

29) 책에 해당 부분이 '■'로 표시되어 있다.



	<p>火正黎 …. 8. …, 愚意阜陶 未爲刑官之時. 9. …, 是後 □非獨人臣… 16. …, 以見其丁寧忠厚之至. 18. …, 則入罰不降…, 官府學校鞭扑之刑罔… 19. …, 若謂罰之輕重 …. 20. …, 而已信之獄輸於上 …. 21. …, 今天以刑 相佐斯民 …, 此章文有未詳者 姑闕之.</p>	<p>北正黎 …. 8. …, 愚按阜陶 未爲刑官之時. 9. …, 是後世非獨人臣 …. 16. …, 以見其丁寧忠厚之至. 18. …, 各入罰不降…, 官府學校鞭扑之刑罔… 19. …, 若謂罰之輕重 …. 20. …, 而民信之獄輸於上 …. 21. …, 今天以刑 相治斯民 …, 此章文有未詳者 姑缺之.</p>	<p>北正黎 …. 8. …, 愚意阜陶 未爲刑官之時. 9. …, 是後世非獨人臣 …. 16. …, 以見其丁寧忠厚之志. 18. …, 各入罰不降…, 官府學校鞭扑之刑罔… 19. …, 若謂罰之輕重 …. 20. …, 而民信之獄輸於上 …. 21. …, 今天以刑 相治斯民 …, 此章文有未詳者 姑缺之.</p>	<p>北正黎 …. 8. …, 愚意阜陶 未爲刑官之時. 9. …, 是後世非獨人臣 …. 16. …, 以見其丁寧忠厚之志. 18. …, 各入罰不降…, 官府學校鞭扑之刑罔… 19. …, 若謂罰之輕重 …. 20. …, 而民信之獄輸於上 …. 21. …, 今天以刑 相治斯民 …, 此章文有未詳者 姑缺之.</p>	<p>北正黎 …. 8. …, 愚意阜陶 未爲刑官之時. 9. …, 是後世非獨人臣 …. 16. …, 以見其丁寧忠厚之志. 18. …, 各入罰不降…, 官府學校鞭扑之刑罔… 19. …, 若謂罰之輕重 …. 20. …, 而民信之獄輸於上 …. 21. …, 今天以刑 相治斯民 …, 此章文有未詳者 姑缺之.</p>
呂刑					
文侯之命	<p>1. …, 言其德之所愷 …. 2. …, 而我小子 又材劣無能, …. 4. …, 乃旋旋焉 …, 以間王政 ….</p>	<p>1. …, 言其德之所修 …. 2. …, 而我小子 又材劣無能, …. 4. …, 乃旋旋焉 …, 以間王政 ….</p>	<p>1. …, 言其德之所修 …. 2. …, 而我小子 又材劣無能, …. 4. …, 乃旋旋焉 …, 以間王政 ….</p>	<p>1. …, 言其德之所修 …. 2. …, 而我小子 又材劣無能, …. 4. …, 乃旋旋焉 …, 以間王政 ….</p>	<p>1. …, 言其德之所修 …. 2. …, 而我小子 又才劣無能 …. 4. …, 乃旋旋焉 …, 以間王政 ….</p>
費誓	<p>2. …, 甲冑 □ 所以衛身 …. 5. 旁曰幹. 牆兩邊障土者也 …, 勢不得擾我之築也 ….</p>	<p>2. …, 甲冑王 □ 所以衛身 …. 5. 旁曰幹. 牆兩邊障土者也 …, 勢不得擾我之築也 ….</p>	<p>2. …, 甲冑 □ 所以衛身 …. 5. 旁曰幹. 牆兩邊障土者也 …, 勢不得擾我之築也 ….</p>	<p>2. …, 甲冑 □ 所以衛身 …. 5. 旁曰幹. 牆兩邊障土者也 …, 勢不得擾我之築也 ….</p>	<p>2. …, 甲冑 □ 所以衛身 …. 5. 旁曰幹. 牆兩邊障土也 …, 勢不得擾我之築也 ….</p>
秦誓	<p>7. …, 前一人似房元齡 ….</p>	<p>7. …, 前一人似房元齡 ….</p>	<p>7. …, 前一人似房玄齡 ….</p>	<p>7. …, 前一人似房玄齡 ….</p>	<p>7. …, 前一人似房玄齡 ….</p>

그런데 명대 내부각본 제10책과 세종대 목판본 『서전대전』 제10책이 일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본들은 서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송대 『주문공정정문인채구봉서집전』 제6책이 다른 본들과 확연히 다른 문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명대 내부각본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전대전』들이 어떠한 판본(版本)을 기준으로 교감되었는지 역사서 등의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아래 표20은 송대 『주문공정정문인채구봉서집전』 제6책만이 차이를 보이는 대주이다.

표20-『서집전』·『서전대전』 간의 주해 비교(대주-1)

「畢命」	8. …, ■完具於己之謂體.
	15. 蘇氏曰□ 弗克者 ….
「君牙」	• …, 此其告命也.
「罔命」	• …, 穆王之用太僕正 ….
	4. …, 周禮 太僕下大夫也.
	9. …, 心操舍之無常 可懼哉.
「呂刑」	1. …, 耄老□ 昏亂之稱 …, 車輪馬跡….
	6. …, 司天以屬神 火正黎 ….
	9. …, 是後□非獨人臣 ….
	18. …, 則入罰不降 …, 官府學校鞭扑之刑爾 ….
	20. …, 而已信之獄輸於上 ….
21. …, 今天以刑 相佑斯民 …, 此章文有未詳者 姑闕之.	
「文侯之命」	1. …, 言其德之所僮 ….
「費誓」	5. …, 勢不得擾我之築也 ….

그뿐만 아니라, 송대 『주문공정정문인채구봉서집전』 제6책·청대 『서경』 제6책·명본 내부각본 『서전대전』 제10책·세종대 목판본 『서전대전』 제10책·정유자본 『서전대전』 제10책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인 조선 후기 정유자본 『서전대전』 제10책만이 대주에서 다른 문자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어, 교감의 기준을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정유자본 『서전대전』은 조선 후기로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본으로 현재 대다수 번역본의 저본(底本)이 되고 있기에, 정확한 번역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21은 정유자본 『서전대전』 제10책만이 차이를 보이는 대주이다.

표21-『서집전』·『서전대전』 간의 주해 비교(대주-2)

「文侯之命」	2. …, 而我小子 又才劣無能 ….
「費誓」	5. …, 旁曰幹. 牆兩邊障土木也 ….

위의 표21에서 5번 「비서(費誓)」 “旁曰幹. 牆兩邊障土木也.”의 밑줄 친 ‘木’은 현재 국내 번역서에서 ‘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중국본 『서집전』에서는 ‘者’로 표기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문자상의 차이로 인한 번역상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② 세주 비교

『서전대전』 세주의 자체(字體)는 대주의 자체보다 작으나, 세주의 분량은 대주의 분량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서전대전』의 세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기에 우선 제10책 중 「필명(畢命)」에 한해서만 비교하였다.

이때에 정유자본 『서전대전』은 무오자본 『서전대전』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음운표기<sup>30)</sup>가 더해져 있다. 이러한 음운표기는 명본 내부각본 『서전대전』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음운표기에 대한 비교는 생략하였다.

다음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주의 차이는 매우 많다. 단지 제10책에 있는 「필명」만을 비교하였는데, 세주의 차이가 많은 것은 경문과 대주보다 교감을 덜 중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대체로 명대 내부각본 제10책과 세종대 목판본 『서전대전』 제10책이 일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과 정유자본 『서전대전』 제10책간에는 매우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행시기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교감의 정밀도가 높아져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교감의 과정과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서 등의 문헌 고찰과 더불어, 제반의 『서전대전』 간의 총체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추후에 갑인자본 『서전대전』 계통인 무오자본 『서전대전』·무신자본 『서전대전』·정유자본 『서전대전』 등을 송대 『주문공정정문인채구봉서집전』·청대 『서경』·명대 내부각본·세종

30) 예를 들면, “熨牛刀反.” 등이다.

대 목판본 『서전대전』의 전책을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본 『서전대전』이 시대별로 내용이 변화된 추이를 정밀히 비교하기 위하여, 정확한 시기와 판본에 대한 판별도 중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순한 판식만을 비교하기보다는, 간인본에 사용된 종이나 먹 등의 재료를 다각적으로 검증하도록 해야 하겠다.

표22- 『서집전』· 『서전대전』 간의 주해 비교(세주)

册	書名	『書集傳』		『書傳大全』			
		宋本 『朱文公訂 正門人蔡九 峰書集傳』	淸本 『書經』	明本 內府刻本 『書傳大全』	世宗代 木板本 『書傳大全』	戊午字本 『書傳大全』	丁酉字本 『書傳大全』
10	畢命			<p>…，唐孔氏曰，韓宣子稱紂使師裹作靡靡之樂 …，家氏復禮曰，…，刑措不用信矣 …，不信民弗從者也 …，皆內於德義，…，豈虛辭哉。</p> <p>…，武崩成幼，管蔡流言，…，錮陰沍寒終消融於春風和氣中，…。</p>	<p>…，唐孔氏曰，韓宣子稱紂使師裹作靡靡之樂 …，家氏復禮曰，…，刑措不用信矣 …，不信民弗從者也 …，皆</p> <p>◆<sup>31)</sup>於德義，…，豈虛◆</p> <p>哉 …，武崩成幼，管蔡流言，…，錮陰沍寒終消融於春風和氣中，…。</p>		<p>…，唐孔氏曰，韓宣子稱紂使師延作靡靡之樂 …，蒙氏復禮曰，…，刑措不用信矣 …，不信民不從者也 …，皆由</p> <p>於德義，…，豈虛語哉。</p> <p>…，武崩成幼，管叔流言，…，涸陰沍寒終消融於春風和氣中，…。</p>

## V.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국본 『상서』의 주요 주해서들의 간행·유통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인본들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규장각 한

31) 글자 판독이 불가능하여, 임의대로 ‘◆’로 표시하였다.

국학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교 도서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국내에서 간행된 한국본으로 상서정의류(尙書正義類)·서집전류(書集傳類)·상서주소류(尙書注疏類)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단지 서전대전류(書傳大全類)만이 조선시대에 걸쳐서 폭넓게 간인(刊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에 『서집전』 계통인 『서전대전』이 전(全) 시대를 풍미하였기에, 아직까지 많은 본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서전대전』만을 중심으로 시대별 간인본을 전수 조사·재분류를 하고, 형태 서지학적으로 분석을 통해 간인본 계통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서전대전』의 간인본은 목판본·활자본(금속활자본·목활자본)이 전해지는데, 이 중 10항22자·10항18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명대 복각본인 목판본 10항22자·국내 활자본 10항18자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 목판본·활자본으로 조선 전기에는 관판본이 주로 간행되었으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관판본 외에 사가본·방각본 등이 다양하게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선 초기 세종대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한 명대 『서전대전』을 중앙정부에서 주요 주해서로서 채택하고 간행·유통을 주도적으로 하여 그 위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국가교육기관의 공식교재이면서 과거시험의 교재인 『서전대전』을 사적으로나 영리의 목적으로 민간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서집전』·『서전대전』 간의 구성체제·내용체제를 비교하였는데, 『서집전』 전6권4책·『서전대전』 전10권10책으로, 『서집전』의 2단체제(경문·대주)에 진력의 『상서집전찬소』·진사개의 『상서채전방통』 등의 세주를 더하여 『서전대전』이 3단체제(경문·대주·세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간의 경문·대주·세주를 비교하였는데, 경문보다는 대주가 대주보다는 세주에서 문자 간의 상이한 점이 많았다. 또한 명대 내부각본과 세종대 목판본 『서전대전』이 문자만이 아니라 자형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세종대 목판본 『서전대전』이 명대 내부각본의 복각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갑인자본 계통의 『서전대전』들이 대부분 문자와 그 자형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초주 갑인자본 『서전대전』을 기본으로 삼아 간행시기에 따라 정밀한 교감을 통해 문자를 교정하며 그 자형도 조금씩

달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하여, 한국본 『서전대전』의 시대별 간인본들과 중국본 『서집전』·『서전대전』 모두가 제각기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널리 교수학습하는 정유자본 『서전대전』이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된 송대 최고 선본 『서집전』으로 알려진 『주문공정정문인채구봉서집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내 간행·유통된 신주소인 『서집전』·『서전대전』이 실제로는 원본인 송대 주희의 제자인 채침의 『서집전』과 문자상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전대전』의 전10권10책 중 제7책과 10책의 일부분만을 비교하였으나, 추후 전10권10책을 전수 비교한다면 불일치하는 문자들이 상당수 발견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는 『서전대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서오경대전』에 속하는 다른 경학서들에도 해당될 수 있기에, 현존하는 한국본인 사서오경을 전수 조사하여 현존하는 송대 최고 선본과 원문서지학적 비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신주소인 사서오경 외에 고주소인 십삼경을 비롯한 한국·중국·일본 등에 전해지는 모든 문헌을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여러 간인본에 사용된 종이나 떡 등의 서사재료들을 다각적으로 검증하여, 시대별 경학서(經學書) 간의 이동(異同)관계를 비교하여야 하겠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교수학습하는 유가경전인 신주소 계통의 사서오경이 실제 송대 주희와 문인들이 저작한 원문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하여, 추후 경학사 연구에 있어서 서지학적 원문비교연구가 기초적으로 선행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書集傳』, 『書傳大全』, 『尙書注疏』 등.

### 2. 단행본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探求堂, 1974.

羅樹寶 著, 趙賢珠 譯, 『중국책의 역사』. 다른 생각, 2008.

蔣伯潛·蔣祖怡 著, 崔錫起·姜貞和 譯, 『儒教 經典과 經學』. 景仁文化社, 2002.

천해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2010.

何耿鏞 著, 장영백·조관희·김애영·박덕교·전영숙 譯, 『經學概說』. 청아출판사, 1992.

李學勤 主編, 『十三經注疏·尙書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3. 논문

강혜영, 「20세기 전반의 전주 지방 서적 간행 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第41輯, 서지학회, 2008, 83-119쪽.

김기화, 「〈七書房〉의 출판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第43輯, 서지학회, 2009, 117-204쪽.

김유미, 「국내 주요 尙書類 문헌 연구」. 『서지학연구』 第70輯, 서지학회, 2017, 145-174쪽.

唐潤熙, 「『四書大全』 판본의 변화와 程朱理學의 演變」.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0號, 중국어문논역학회, 2007a, 265-284쪽.

\_\_\_\_\_, 「韓國所藏 中國本 『四書大全』 版本 小考」. 『중국어문학논집』 第43號,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b, 375-394쪽.

송일기, 「永樂 內府刻本 〈四書大全〉의 朝鮮 傳來와 流布」. 『한국문헌정보학회지』 第48卷 第1號,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97-116쪽.

옥영정, 「非小說 漢文坊刻本 刊行에 대한 書誌의 高찰」. 『洙上 古典研究』 第31輯, 열상고전연구회, 2010, 213-254쪽.

李康範, 「明代 『五經大全』 纂修의 배경과 經學史의 意義」. 『중국어문학논집』 第74號,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431-457쪽.

王春林, 「『書集傳』 版本源流」. 『中國哲學史』 第2期, 中國人民大學哲學系, 2010, 101-104쪽.

劉起鈺, 「尙書與群經版本綜述」, 『史學史研究』第三期, 北京師範大學歷史學院史學研究所, 1982, 50-55쪽.

#### 4.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 국 문 초 록

동아시아에서는 유가경전으로서 고주소(古注疏)인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와 신주소(新注疏)인 사서오경(四書五經)이 두 축을 이루어 공존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 『상서(尙書)』의 주요 주해서(注解書)로 고대(古代) 시대에는 고주소(古注疏) 계통의 『상서정의(尙書正義)』· 중세(中世) 시대에는 신주소(新注疏) 계통의 『서집전(書集傳)』· 근세(近世) 시대에는 신주소 계통의 『서전대전(書傳大全)』· 고주소 계통의 『상서주소(尙書注疏)』가 수용되어 간행·유통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는 이 중 『상서』의 신주소에 관한 연구로서, 신주소가 출현한 배경과 위상을 고찰하고, 국내에서 간행·유통된 『서집전』·『서전대전』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현존하는 중국본과의 원문서지학적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상서』의 신주소는 고주소의 저본(底本)인 『공전고문상서(孔傳古文尙書)』를 비판하면서 나타난 송대(宋代) 『서집전』이 명대(明代) 『서전대전』인 관찬서(官撰書)로 편찬·보급되면서, 국내에 고려 후기에는 『서집전』이 조선 초기에는 『서전대전』이 수용되어 간행·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연유로, 국내 현존하는 한국본 상서류(尙書類)는 신주소인 서전대전류(書傳大全類)만이 전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래서 한국본 『서전대전』을 시대별로 세종대(世宗代) 목판본(木板本)(조선 초기 분)·무오자본(戊午字本)(임진왜란 이전 본의 부재로, 대체한 분)·정유자본(丁酉字本)(임진왜란 이후 분)을 선별하여, 중국본 『서집전』·『서전대전』과 원문 비교분석을 행하였다. 그런데 이들 한국본과 중국본 『서집전』·『서전대전』 모두가 제각기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널리 교수학습하는 정유자본이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된 송대 최고(最古) 선본(善本) 『서집전』으로 알려진 『주문공정정문인채구봉서집전(朱文公訂正門人蔡九峰書集傳)』과 차이를 보여, 국내 간행·유통된 신주소인 『서집전』·『서전대전』이 실제로는 원본(原本)인 송대 주희(朱熹)의 제자인 채침(蔡沈)의 『서집전』과 문자상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 신주소인 사서오경도 원본인 송대 주희의 저작과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기에, 서지학적인 정밀한 조사·연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중국에서 수용한 신주소 계통의 사서오경이 실제 한국에서는 상이한 문자로 간행·유통되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다. 또한 더 나아가, 한국에서는 주자의 원저작과 문자상 어떠한 부분에서 상이한 해석으로 교수학습하였는지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송대 주자와 제자들이 고주소를 토대로 작성한 신주소의 본래적 의미와 한국에서 상이하게 해석하고 있는 의미들의 차이점을 총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17. 9. 21.

**심사일** 2017. 11. 27.

**게재 확정일** 2018. 2. 26.

**주제어(keyword)** 『상서』(『尙書』, *Sangseo*), 『서경』(『書經』, *Seogyeong*), 『서집전』(『書集傳』, *Seojibjeon*), 『서전대전』(『書傳大全』, *Seojeondaejeon*), 채침(蔡沈, *Chaechim*)

## Abstracts

### A Bibliographical Study on *Seojeondaejeon*(『書傳大全』) published in Korea, New Type of Commentaries of *Sangseo*(『尙書』)

Kim, Yu-mi

Two types of commentaries on Confucian classics coexisted in East Asia; the old type(十三經注疏, *Sibsamgyeongjuso*) and new type(四書五經, *Saseogyeong*). For this reason,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commentaries on *Sangseo*(『尙書』) in Korea are regarded to have been the old type *Sangseojeongui*(『尙書正義』) in ancient times, the new type *Seojibjeon*(『書集傳』) in middle ages, and the new type *Seojeondaejeon*(『書傳大全』) and old type *Sangseojuso*(『尙書注疏』) in modern ag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new type of commentaries on *Sangseo*, such as *Seojibjeon* and *Seojeondaejeon* by examining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the new type, and comparing commentaries published in Korea with existing Chinese publications through bibliograph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ew type of commentaries was developed from *Seojibjeon*, written in Song dynasty to criticize the old type *Gongjeongomunsangseo*(『孔傳古文尙書』), and distributed as the government-published textbook *Seojeondaejeon* in Ming dynasty in China, with both *Seojibjeon* and *Seojeondaejeon* being imported and printed extensively in the Goryeo and Joseon dynasty in Korea.

Thus, only the new type *Seojeondaejeon* commentaries were found in the existing Korean-published commentaries on *Sangseo*. Based on this, three versions of *Seojeondaejeon* were selected and compared with the *Seojibjeon* and *Seojeondaejeon* published in China. The three versions are woodblock prints made in early Joseon(世宗代 木板本) · *Muobjabon*(戊午字本, this version was selected because of no version made befor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 *Jeonyujabon*(丁酉字本, after Japanese invasion).

The comparison was merely done with the several chapters, not whole contents. Therefore, only some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three versions made in Korea and Chinese publications.

If the comparison of study is conducted with the whole contents, more differences can be found. Moreover, there were particularly notable things about differences between *Jeonyujabon* and 朱文公訂正門人蔡九峰書集傳. *Jeonyujabon* is widely used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Korea, and *Jumungongjeongjeongmuninchaegubongseojibjeon*(朱文公訂正門人蔡九峰書集傳)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and oldest *Seojibjeon*.

With these findings, it can be assumed that the *Seojibjeon* and *Seojeondaejeon* published in Korea can b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Seojibjeon* written by Chaechim(蔡沈), the disciple of Juhui(朱熹). Further, the similar differences possibly exist between the *Saseogyeong*(四書五經) published in Korea and

the originals written by Juhi and his disciples. Consequently, an extensive investigation of Confucian classics should be necessary.